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그런지(Grunge) 패션에 관한 연구

정유경 · 금기숙*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의상디자인과,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

A Study on The Grunge Fashion of the 1990's and 2000's

Yu Kyoung Chung · Key-Sook Geum*

Dept. of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Dept. of fiber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2004. 5. 1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iscover the hidden value of non-mainstreamers style which has been overlooked for the past decade by investigate the aesthetics and formative features of the Grunge fashion. The Grunge fashion was derived from explosive popularity of the early 90's grunge music. Grunge was the alternative anti-thesis against mainstream pop music and anti-fashion against mainstream fashion. Dirty, rubbish grunge style of the poor street youth and grunge musicians have raised to the high fashion by designers. And These trial of designers made people to notice the value of the non-mainstreamers street style like grunge. Actually, the grunge brought the shock with many argument to the 90's fashion field. But now, It became the classic of the street fashion. And It has potent influence on the music, culture and high fashion. The Grunge is a kind of links between music and fashion, street fashion and high fashion, sub culture and mainstream culture, the past and now. Grunge isn't only a fashion of appearance. It is the attitude of wearing clothes and living a life. Variety grunge style in the international street fashion, high fashion, typical musicians's fashion of the 1990's and the 2000's was researched for this study. These materials were gathered from music magazines, fashion magazines, movies, musics and books. As a results of analysis, Grunge has the formative features like mix & match, layering, patchwork, primitive edge, rag, retro, recycle, kinderwhore, sneer scribbling, disheveled hair. Grunge also has the Aesthetic features like the beauty of disorder · disharmony · incompleteness · kitsch · poverty · alternative · eclectic · symbiosis. For the last 10 years, These features changed our fashion be more pluralistic and dynamic.

Key word: Grunge, Grunge music, Anti fashion, Pluralism, Mix match layer; 그런지, 그런지 음악, 안티 패션(反패션), 다원주의, 믹스 매치 레이어

I. 서 론

'그런지(grunge)'는 1990년대 초중반을 풍미한 일련의 음악사조와 그 파생물들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파생물 중 하나인 '그런지 패션'은 90년대 초 침체되었던 청년문화를 부활시키고 스트리트 패션의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하이패션이 보다 다원적인 가치와

스타일을 수용하게 만들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도 인기를 끈 그런지 및 얼터너티브(Alternative) 음악은 90년대 한국 록 음악사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그런지 패션'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찾아보는 것은 힘들다. 한국에서 그런지는 무관심하게

지나쳐지거나 빈티지, 구제패션 등 다른 이름에 교묘히 가린 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유행가의 멜로디, 흐트러지고 낡은 듯 디자인된 신제품, 구제 상점의 찢어진 청바지나 믹스매치 룩(mix match look)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문화와 패션에 깊숙이 스며 있다.

굳이 2000년대 이후 패션계에서의 그런지 유행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스트리트패션에서의 그런지가 주류 또는 하이패션의 유행과 무관하게 늘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은 그런지의 연구 가치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패션에 대한 고찰로서의 그런지 패션 연구는 시기적절한 논제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1990년대와 2000년대 그런지 패션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대의 청년문화, 대중예술, 스트리트 패션 그리고 하이패션의 관계를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런지의 전성기인 1990년대와 포스트(post)그런지 시대라 할 수 있는 2000년대로 시기를 나누어 각 시대의 뮤지션패션, 스트리트 패션, 하이패션 그런지의 조형성에 대하여 분석한 뒤, 각각의 조형성에서 도출된 조형미에 대해 정리하였다. 패션잡지, 음악전문서적, 스트리트 패션과 패션쇼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그런지 음악과 영화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하이패션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오프무튀르나 프레타포르테를 통해 발표한 작품에서 발생돼 일반인에게까지 전파되는 패션을, 스트리트 패션은 거리의 젊은이들에게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유행이 패션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90년대 그런지 음악의 범위는 사실상 그런지의 핵인 90년대 초중반의 ‘시애틀(seattle) 그런지’로 제한 서술하기로 한다.

II. 그런지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그런지의 출현

지글대는 기타 사운드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지’라는 일종의 속어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소위 그런지라고 불리는 록 음악의 한 장르가 대중에게 인기를 끈 이후부터이다. 그런지 음악은 시애틀을 중심으로 발전된 음악사조로, 무겁고 지저분한 느낌의 복고적 사운드가 특징이

다. 밴드마다 음악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그런지 밴드들이 언더그라운드의 인디밴드로 시작하여 주류 팝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로 작용하면서 젊은 세대를 대변했으며, 전 시대에 대한 대안의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지 음악은 X세대로 불리던 당시 젊은 세대의 정서와 맞물려 큰 인기를 얻었고 이 영향력은 사회, 문화, 예술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일례가 90년대 초중반의 ‘그런지 패션’, 혹은 ‘그런지 룩’의 유행이다. 지저분하고 남루한 스타일로 특별한 형식 없이 낡은 옷들을 아무렇게나 겹쳐 입는 믹스매치 레이어가 특징인 그런지 패션은, 90년대 초 뮤지션들이 즐겨 입은 후 젊은이들의 거리패션으로 유행하였고 하이패션계에도 영향을 주어 선풍을 일으켰다. 이후 현재까지 그런지는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엘리트적 정통 하이패션에 대한 반(反)패션인 그런지는 전 시대의 히피룩, 평크룩, 보헤미아니즘, 해체주의, 푸어(poor)룩, 레이어룩, 재활용패션, 에콜로지패션 등과 영향관계하에 있으며, 히피나 평크처럼 젊은 세대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기성세대의 가치에 도전하는 메시지 강한 패션이기도 하다.

2. 시대적 배경

X세대의 시대인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그런지가 처음 표면위로 등장하여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실상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당시는 21세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지난 세기의 과학과 물질문명 발달이 야기한 인간성 상실, 환경파괴문제 등에 대한 회의감도 팽배했던 시기이다. 이로 인해 환경친화, 자연주의, 에콜로지, 재활용, 복고적인 그런지음악과 언플러그드음악이 유행했으며 이런 개념들은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런지의 발상지인 미국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10대 후반과 20대를 지나고 있던 X세대에게 ‘멍청하고 고약한 히피이거나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타락한 여파(“그런지의 미학과 정치”, 1996)인’ 부모세대에 대한 환멸, 시대에 희생되었다는 피해의식, 일콜과 약물남용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염세적, 냉소적이며 소비, 정치, 예의 등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에게 안티패션으로서의 그런지 룩은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한편 90년대 이후 PC 보급과 인터넷 열풍으로 인

해 형성된 사이버문화는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젊은 대중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다양하고 가변적인 문화들, 다원적인 비주류 문화들이 주류문화와 더불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90년대 이후의 젊은 세대를 위시한 스트리트 패션의 부상과 직결되며, 스트리트 패션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적극 수용되기 시작했다.

3. 음악적 배경

그런지 패션의 유행에는 경기침체, 재활용패션과 복고의 유행, X세대 등극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것은 그런지 음악이다. 그런지 패션이 파워지향적인 80년대 패션에 반하는 것처럼, 그런지 음악 역시 80년대의 화려한 주류 팝음악과 확연히 다른 면을 보여준다. 쉽게 3M(MTV · Madonna · Michael Jackson)으로 요약될 수 있는 80년대 팝은, 시각을 충족시키는 댄스뮤직과 과도한 화장, 화려한 의상의 스타들로 대변될 수 있다. 80년대 주류 록 음악 역시 상업적인 팝과 결탁되면서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록 스타들은 타이트한 가죽바지로 남성파워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때 시애틀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주류음악과 상반되는 록을 구사하며 홀날 그런지로 명명되는 인디밴드들이 결성되기 시작한다. 그들 중 ‘널바나(Nirvana)’, ‘펄잼(Pearl Jam)’ 등이 주류입성 후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는 80년대의 신보수주의 흐름 속에 잠잠했던 청년문화를 깨우며 부모세대들이 물려준 시대상황과 80년대의 엘리트적 사회풍조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던 당시의 청년반항을 사회표면 위로 분출시키는 계기가 됐다(신현준외, 1996). 공연 중 악기를 부수기도 하는 이들의 음악 스타일은 대체적으로 지저분하고 혼돈스러우며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 사운드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자조(自嘲)적인 시(詩)적 가사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의 스타일은 전 시대의 대표적 반문화인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는 히피와, 자기 파괴적 · 허무주의적이며 거칠고 원초적인 폭력을 반쯤 계승하고 반쯤 부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록이 극단적인 남성중심의 섹슈얼리티를 보여준 반면, 그런지는 보다 다원적이고 대안적인 성정체성을 보여주며 이것은 그들의 의상을 통해서도 표현되었다. 그 중 여성중심 밴드인 ‘홀(Hole)’의 커트니 러브(Courtney Love)가 보여준 ‘킨더호어(Kinderwhore)

록’은 곧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와 안나 수이 등에 의해 캐트워크에서 재현되어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지의 인기는 언더그라운드의 순수성과 자본주의의 상업성 사이에서 고심하던 그런지 뮤지션의 자살과 더불어 90년대 중반 이후 수그러들게 되었다.

III. 1990년대의 그런지 패션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그런지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10대들의 정서를 반영한 그런지 음악이 크게 유행을 했고, 이것은 옷차림과 문화로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런지 패션은 스트리트에 머물지 않고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어 한동안 획기적인 스타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비평가와 소비자로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 1990년대 그런지 음악과 그런지 패션의 관계

20세기 이후 대중매체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중과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급증시켰다. 대중성이라는 대중문화의 특성은 곧 여러 문화와 예술의 장르가 그 영역을 허물고 상호영향을 주며 공생해나가도록 만들었다. ‘패션과 음악’ 역시 20세기 이후 더욱 관계가 밀접해진 사례로, 오늘날 대중 음악가들은 패션을 통해 그들의 음악과 스타일을 가시화하며, 대중 음악가들의 음악과 패션은 그것을 수용하는 젊은이들 뿐 아니라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준다. 또 특정 장르의 음악을 선호하는 집단이 비슷한 패션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대중음악과 패션은 그 수용자의 정체성, 가치관과 직결되는 것이다. 특정 스타일을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을 주류문화 또는 태인과 구분 짓고자 하는 반문화적 현상을 청년하위문화의 스타일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청년층을 위시한 스트리트 패션은 대부분 폭크, 힙합, 테크노 등과 같이 대중음악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게 된다.

그런지 뮤지션들의 패션 역시 당시 가난한 주변부 젊은이들의 패션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화려했던 80년대의 주류와는 거리가 있었다. 음악도, 패션도, 삶의 태도도 모두 단정치 못하고 헝클어져있던 이들의 스타일은, 이후 영향을 주게 되는 하이패션과 스트리트의 그런지에 비해 과격하고 정제되지 않은 것

<표 1> 1990년대 남성 뮤지션 그런지 패션의 주요 특성

특성	대표적 스타일	특성	대표적 스타일
미완성적 마무리 •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 • 끝처리를 하지 않고 잘라 입은 의상		지저분하고 형틀어진 헤어스타일 • 일체의 인위적 장식을 배제한 반문화적 스타일	
낡고 해진 무대 의상 • 상업적으로 성공한 스타가 된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그들의 스타일을 고수함		믹스매치 레이어 & 패치워크 • 이질적인 소재와 스타일간의 조합 • 그런지 이후 90년대 패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됨	
낡은 플레이드 플란넬 셔츠 & 복고적 프린트 셔츠 • 90년대 초 경기침체와 복고 물결의 영향 • 80년대의 웰리트적, 소비지향적 문화에 대한 반발		여장, 낙서, 우스꽝스러운 의상 • 80년대 록스타의 남성우월주의와 달리 다원적 절충적인 성 정체성을 보여줌 • 사회·정치에 대한 직접 비난 대신, 조소와 유머가 담긴 낙서 의상 통해 냉소적 방법으로 피력	



<그림 1> Courtney Love, Kinderwhore. 90년대 초 이 그 특징이다.

뮤지션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들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된 컬러는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톤 다운된 그레이, 카키, 블루 등이다.

한편 그런지 패션은 남녀 모두에게 받아들여졌지만 표현이 동일하지만은 않았으며, 여성 그런지 뮤지션들에게서는 남자들과 또 다른 의미의 저항과 또 다른 형태의 그런지 패션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 뮤지션들은 소녀와 창녀의 이미지를 넘나드는 극단의 양립을 보여주는데, 이 중 커트니 러브의 키치적 옷차림에 붙여진 ‘킨더호어(어린이창녀)’라는 이름은 그들의 스타일을 잘 요약해준다. 마구 자른 듯한 머리, 얼룩진 화장, 구멍 난 스타킹, 찢어진 베이비 놀 드레스, 속옷과 겉옷의 구분이 거의 없는 의상을 되는대로 걸친 그녀의 과감한 패션은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투적 이미지로 각인되면서, 남자를 위한 노출이 아닌 자신의 여성성 혹은 정체성을 드러내며 고정관념에 반항하는 ‘도전’의 의미로 평가되어진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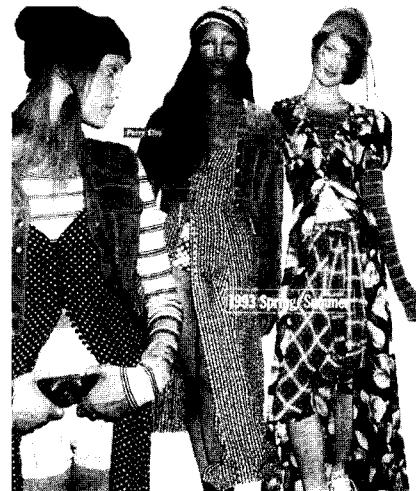
2.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그런지

펑크가 패션이 음악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그런

지는 음악이 패션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 패션과 대중음악이 이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행사하면서 대중매체와 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될 때 음악과 패션은 시대정신의 표현으로써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90년대 초 ‘시대의 피해자’로 주변을 배회하던 청년들은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듯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과격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지 밴드가 되었다. 당시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과 닮은, 그러나 그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는 그런지에 열광한다. 억눌렸던 청년문화와 경제 불황은 음악의 힘을 빌어 마침내 80년대의 파워드레싱을 종식시키고 시대가 그런지 패션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런지 음악이 팝 차트를 장악한 92년 무렵엔 디자이너들도 그런지를 거론하게 된다. 90년대 초, 거의 모든 패션 광고에는 80년대의 완벽한 수퍼모델 대신 중성적이고, 아이 같고, 머리는 제멋대로 형틀어진 미완성의 그런지 모델들이 있었다. 당시 젊은 문화를 반영한 영화 주인공들 또한 그런지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거리는 모델과 배우를 닮은 젊은이들로 넘쳐나게 된다. 젊은이들 속에서 생겨난 음악이 주류 음악계를 거쳐 젊은이들에게 재수용되고, 이것은 하이패션에 수용되었으며, 하이패션은 또 다시 거리 젊은이들에게 수용되게 된 것이다. 그런지는 한동안 패션 흐름의 방향을 변화시켰다. 물론 스트리트의 그런지는 뮤지션들의 그것에 비해 순화된 형태로 변형되어 받아들여졌으며, 형틀어진 헤어스타일, 찢어진 청바지, 빈티지, 복고적 꽃무늬 드레스와 투박한 군화의 믹스매치, 플레이드 플란넬 아이템 등이 선호되었다.

3. 1990년대 하이 패션의 그런지

93년 S/S시즌,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는 그런지 음악과 ‘킨더호어 룩’, 가난한 거리 젊은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런지 컬렉션을 통해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믹스매치 레이어 룩을 선보여 충격을 주었다. 바로 전인 80년대까지 부자처럼 보이는 스타일과, 모든 것이 세련되게 매치된 토텔룩(total look)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컬렉션이 주는 충격은 더했으며, 평가도 극단적이어서 ‘기준 가치에 반기를 든 뉴 패션’이라는 찬사와 ‘쓰레기’라는 혹평을 동시에 들었다(한국경제신문, 2002). 실제로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이 시도는 이후 90년대의 패션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 패션



<그림 2> 93 s/s Perry Ellis (by Mark Jacobs)

계가 더 많은 가능성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94 S/S 시즌에는 안나 수이가 킨더호어를 차용한 컬렉션을 선보였고, 뒤를 이어 V.웨스트우드, D&G, K.라거펠드와 같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런지의 영향을 받은 룩을 선보임으로써 그런지는 스트리트에서 생겨나 하이패션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90년대 초를 대표하는 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것은 스트리트 패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영역이 하이패션계에까지 확대되도록 만들었으며, 90년대 이후 패션의 유행이 낮은 곳에서 위로 전파되는 상향전파 방식이 늘어나는데 일조했다. 90년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사용한 그런지의 조형성 중에는 믹스매치 레이어가 가장 두드러지고, 2000년대와 비교했을 때 데님 아이템의 사용이 적으며 스트리트 룩이 상당히 정제된 형태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그림 2).

IV. 2000년대의 그런지 패션

미니멀리즘의 대유행과 함께 그런지가 수그러들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의 시대는 포스트 그런지 시기라 볼 수 있다. 90년대 말부터는 다시 럭셔리 룩, 글래머러스한 레트로룩(Retro look)이 부활했으며, 뒤 이은 21세기는 극도로 화려한 맥시멀 글램룩(maximal glam look), 이와 대조적인 젠(Zen)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 6-70년대의 로맨틱 히피, 보헤미안룩의 유행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외적인 부(富)보다는 내적인 부와 자유를 중시하는 보보스(Bobos: bourgeois bohe-

mian)의 개념이 패션을 비롯한 문화전반에 걸쳐 크게 유행하면서 구제의류를 다시 꺼내 입은 듯한 빈티지와 그런지도 돌아왔다. 21세기의 그런지는 전성기의 그것 보다 부드러워지고 글래머러스해졌으며, 다른 스타일들과 믹스되어 보다 실용적인 형태가 되었다.

1. 2000년대 음악과 패션의 관계

시애틀 그런지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대신 포스트 그런지로 분류되는 록 밴드들이 뒤이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음악은 그런지를 연상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밴드마다 펑크, 하드코어 랩, 브릿 팝,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의 팝음악들과 크로스오버(Crossover)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크로스오버 현상은 특히 90년대 이후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록 음악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들이 뒤섞인 상태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장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거나 많은 신종 장르들이 양산되기도 했다. 음악 스타일이 다양해진 만큼 뮤지션들의 패션도 다양해졌으며 음악에서의 크로스오버는 뮤지션들의 패션으로 먼저 표현된다. 21세기의 수많은 록 스타들 중엔 그런지 빈티지를 즐겨 입는 부류, 힙합이나 테크노를 즐겨 입는 부류도 있으며, 과기스러운 이미지나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을 즐기는 부류도 있다. 록 이외에 힙합, 라틴, 다양한 댄스음악들이 2000년을 전후하여 인기를 끌면서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힙합 패션은 피부색을 떠나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고, 흑인 뮤지션들과 라틴 스타들의 패션은 과감하고 색다른 섹시함을 찾는 패션계의 흐름과 맞물려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걸 팝 스타들, 보이밴드 등 주류 팝의 패션은 컷 워크와 스트리트를 통해 재현되고 있다.

2. 200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그런지

모든 것이 뒤섞이고 수용되는 90년대 이후 스트리트 문화 흐름의 핵심은 ‘다원주의’라 볼 수 있다. 2000년을 전후로 퓨전(fusion), 글로벌리즘, 크로스오버, 레이스리스(raceless), 하이브리드(hybrid) 등의 개념이 문화 전반에 걸쳐 대두된 것은, 기존의 주류 가치기준이 아닌 소수 하위집단이 제시하는 비주류적, 다원적인 가치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위치 또한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주축으로

키치와 엽기문화가 성행하는 현황은 그런지가 처음 등장해 충격을 주었던 90년대 초와 많이 달라져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10여년 만에 돌아온 그런지도 쉽게 수용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런지는 다른 여러 이미지들과 뒤섞이며 순화되기도 했다. 또한 보보스를 지향하는 요즘 세대들은 겉으로 부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유, 본질적인 내면의 가치와 행복을 더 중시하며, 한껏 치장한 듯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몇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 보이는 스타일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지, 빈티지, 앤틱 같은 구제패션의 개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중고시장에서 건져낸 것들, 지나가 버린 것들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지의 특징은 빈티지, 앤틱에서 더 나아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믹스매치하는데 있다. 이로써 그들의 자유로운 감성이 표출되고 전혀 다른 조형성과 스타일이 탄생하게 되며, 이를 반영한 스트리트 패션의 영역 또한 날로 확대돼가고 있다.

I) 조형적 특성 분석

젊은이들의 거리패션 사진, 그들을 겨냥한 패션브랜드 의류사진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리된 2000년대 스트리트 그런지의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빈티지

그런지 패션의 빈티지는 구제 의류를 다양하게 믹스매치하고, 리폼(reform)하는 등 다른 조형적 특성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빈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2000년대의 패션브랜드들로 하여금 빈티지로 보이는 신제품을 만들어 내게 하며, 빈티지 상점과 같은 대안적 형태의 상점들 또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미완성적 마무리, 패치워크, D.I.Y(do it yourself)

찢어진 청바지는 그런지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빈티지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은 멀쩡한 청바지를 구제로 보이도록 찢거나 낮게 만드는 작업을 즐긴다. 90년대 말부터는 거의 모든 진(jean) 브랜드에서도 낡고 찢어진 새 청바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진 외에도 시접처리를 않고 올이 풀리도록 만든 미완성적인 마무리(primitive edge)의 의상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 펑크의 D.I.Y처럼 스스로 옷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셀프리폼도 늘어나고 있으며, 리폼 의류만 판매하는 상점도 인기를 끌고 있다.

(3) 믹스 매치 레이어

이질적인 소재, 색감, 패턴,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런지의 믹스매치레이어는 80년대의 토텔룩이나 한벌 수트와는 대조적인 특징으로, 다원적인 90년대 이후 패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스트리트와 하이패션 모두에서 활발히 일어난다.

(4) 힙피, 보헤미안

그런지는 힙피, 보헤미안의 남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주 중첩되나 경기침체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부유했던 시대의 힙피보다 저명도, 저체도인 경향이 있다.

(5) 기타

그런지가 10여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스타일과 믹스되어 표현되는데, 주로 평크 룩, 힙

합 룩, 스포츠 룩, 밀리터리 룩, 랜제리 룩 등과 혼합되어진 형태이다. 이런 특징들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스트리트의 다양한 문화와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그런지 패션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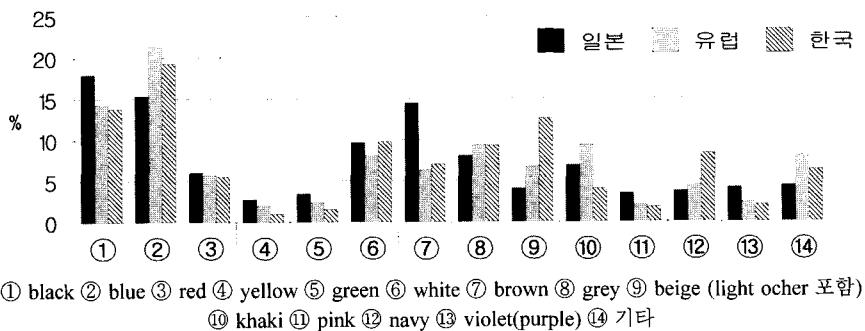
2) 지역별 분석

각 나라의 문화와 예술,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므로 스트리트 패션의 그런지 역시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2년 3월~2003년 6월까지 직접 촬영하거나, 패션지, 인터넷 등을 통해 거리패션 사진을 수집한 후, 이중 그런지의 조형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의복의 착용자 총 109명(일본 43, 유럽 37, 한국 29명)을 선정했다. 다음의 <표 2>는 이들이 착용한 1149개

<표 2> 2000년대 그런지의 지역별 분석

지역	특성	대표적 스타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쿄는 코스프레(costume play), 강구로(Ganguro), 원래의 그것보다 요란하게 치장한 평크(punk)를 비롯해 장식적이고 과장되고 만화적 요소들이 가미된 개성 있는 스트리트 패션이 강세이며, D.I.Y 방식으로 직접 옷과 소품을 만들거나 빈티지 의상을 리폼하는 것을 즐김 질서 파괴적이고 뛰는 패션으로 가득한 일본에서, 최근 몇 년간 스트리트 패션의 근간이 되는 것은 레이어드, 믹스 매치드되고, 낚아 보이는 그런지라고 할 수 있음 찢어지거나 넓고 구멍 난 것을 개의치 않고, 상식적인 조화를 개의치 않으며 마구잡이로 걸쳐 입거나 기워 입고, 낙서를 해대는 그런지를 다른 여러 요소들과 믹스함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사와 평크의 나라이자 보수성과 과격한 진보성을 동시에 가진 영국은 독특한 스타일의 스트리트 패션이 강세 반체도적인 평크죽이 존재하는 런던은, 자유롭고 격식에 얹매이지 않으며 조금은 남루한 스타일을 즐기는 편임 파리, 밀라노 등 유럽 도시들에서는 빈티지 위주의 그런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레이어드 스타일, 험라인을 채어낸 데님 아이템, 헝클어진 머리, 니트 모자 등이 강세 밀리터리 그런지와 같이 다른 룩들과 믹스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행에 민감하지만 지나치게 뛰는 것은 즐기지 않음 90년대 후반에는 미니멀, 베이직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패션을 지향했으며 10-20대 사이에서는 힙합패션이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 특히 순화된 형태의 힙합인 '세미(semi)힙합'이 '뉴베이직(new basic)', '아메리칸 트레이디셔널(American traditional)' 개념과 혼용되면서 유행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메리칸 캐주얼로부터 유러피안(European)과 일본스타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그런지 스타일도 함께 수용되기 시작 초반에는 힙합과 믹스된 그런지가 강세를 보이다가 빈티지 의류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의상의 레이어도 보다 자유롭고 과감하게 변화하고 있음 	

<표 3> 2000년대 일본, 유럽, 한국 스트리트 패션 그런지의 컬러 비율 비교



아이템(일본 436, 유럽 306, 한국 407개)을 토대로 분석한 지역별 특성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클럽(Club)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언더문화, 인디문화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거리문화의 변화에 일조하였으며, 이들만의 문화에 기반한 옷차림들은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각 도시에 따른 스타일의 차이도 보이는데, 서울 스트리트가 비교적 베이직하고 고급스러운 것을 즐기는 데 비해, 남부로 내려갈수록 화려하고 과감한 연출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풍 스타일도 자주 보인다. 한편, 과시적이 고 과장된 힙합에서 너덜너덜한 그런지로의 이행은 IMF 이후의 지속적 경기침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앞서 수집한 거리패션 사진에서 선정된 109명이 착용한 1149개 아이템에 각각 사용된 컬러의 출현빈도와,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성을 분류해 통계 내 보았다.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믹스매치 레이어와 빈티지며, 컬러 사용빈도는 <표 3>에서 나타나듯 블루, 블랙, 화이트, 브라운, 그레이, 카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타 지역에 비해 조형적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으며 조사된 거의 모든 사진에서 강도 높은 믹스매치와 레이어가 발견된다. 유럽과 미국 지역 역시 믹스매치 레이어링의 빈도수가 가장 높으나 레이어링 강도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며, 빈티지 블루 데님 아이템이 타 지역보다 많이 발견됐다. 한국은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런지의 조형적 특성이 약하게 드러나는 대신 베이직, 세미힙합과 믹스웨어화된 그런지가 많았다. 컬러 사용에서는 데님아이템으로 인해 블루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블랙은 블루와 더불어 남녀를 불문하고 전 지역의 다양한 아

이템에서 선호된 컬러다. 낡고 바랜 것을 즐기는 그린지의 특성상 저채도, 저명도로 그레이화(grey化)된 카키, 블루, 오카 등의 컬러사용도 눈에 띄었다.

3. 2000년대 하이 패션의 그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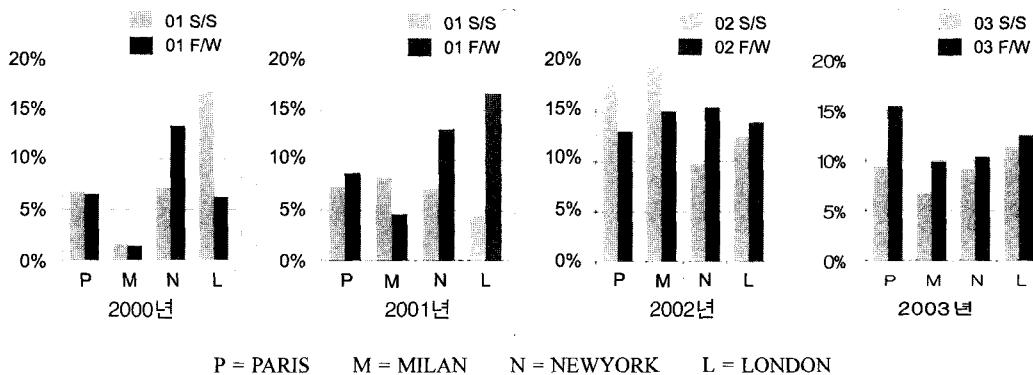
90년대 이후로는 유행 흐름의 앞머리를 쥐고 있는 것이 사실상 하이패션이 아닌 스트리트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상일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의 힘이 커지고 있으며 그들의 구매력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트리트 패션이 하이패션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즌이 거듭될수록 하이패션계의 전통적 디자인하우스 의상에서도 스트리트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다수의 프레타포르테 디자이너들이 작품에 스트리트 모드를 반영



<그림 3>
Marc 03 f/w

<그림 4>
A.Macqueen 00 f/w

<표 4> 2000년대 하이패션 그런지의 추이



하고 있으며, 일부 디자이너들의 경우 완벽하게 스트리트화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한다. 10년 전 그런지를 캐워크로 끌어올렸던 마크 제이콥스, 안나수이, D&G, V.웨스트우드 등이 입지를 더욱 굳히며 그런지를 반영한 컬렉션을 선보일 뿐 아니라, 도나카란처럼 그런지와 무관할 것 같은 디자이너들도 그런지 의상을 만들고 있다. 그 밖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런지 음악과 90년대 초 그런지 패션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2000년 이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낡고 구멍 난 소재, 낙서 프린트, 격식을 깬 믹스매치 레이어, 찢어서 마무리한 험라인 등에 해체·아방가르드와 믹스된 독특한 그런지 의상이 등장하며 빈티지 데님, 헝클어진 머리, 럼버 잭 플레이드, 복고풍 꽃무늬 원피스, 군화형 부츠 같은 아이템들이 그런지가 아닌 다른 아이템들과 믹스되어 순화된 형태로 무대에 오르는데, 때로는 그런지와 상반되는 이미지의 럭셔리하고 깔끔한 아이템들과 믹스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런지는 패션계가 더 많은 가능성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그림 3, 4).

I) 지역별 분석

2000년대 이후, 즉 00 S/S~03 F/W까지의 8개 시즌을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의 4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으로 나누어 그런지 추이를 분석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 그런지의 특성을 지닌 의상들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2년도에 4개의 컬렉션 모두에서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으며, 03 S/S 시즌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F/W시즌이 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S/S보다는 F/W 시즌에 그런지

의상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패치워크와 믹스매치 레이어링 아이템들의 증가 때문이다. 이중 파리에서는 벨기에와 일본출신 디자이너들의 전위적이고 해체주의적인 의상들에 편승한 그런지를 찾아볼 수 있었고, 세련된 미니멀이 눈길을 끌던 밀라노는 01~02년에 보다 다채로운 스타일이 많아지면서 그런지 믹스된 의상들도 늘어났다. 뉴욕은 그런지의 발상지인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해 지속적으로 그런지 컬렉션이 등장하고 있다. 런던은 전위적인 신인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이들의 컬렉션에 등장하는 그런지 의상들로 인해 대체적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 디자이너별 분석

앞서 분석한 8시즌 4개 지역 컬렉션을 중심으로, 그런지의 빈도와 강도가 높은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각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그런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5>는 2000년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한 그런지 디자인 강도, 조형특성, 아이템, 컬러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해체적 디자인과 아방가르드 한 디자인은 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 하이패션계의 보편적 특성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현재 스트리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지만 스트리트 패션과의 연계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패션의 컬러사용은 스트리트에 비해 색의 분포가 넓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디자이너의 선호와 유행에 따라 컬러의 사용 빈도는 시즌별, 디자이너별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표 5> 2000년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의 그런지 디자인 강도, 조형특성, 아이템, 컬러

디자이너	지역	시즌	강도	조형적 특성	주 아이템	컬러	조형미
마크 제이콥스	뉴욕	00f/w	중	복고, 스트리트풍의 믹스매치 레이어링, 오리지널 뮤지션 그런지	코트, 재킷, 셔츠, 티셔츠, 스커트, 팬츠, 부츠, 스니커즈, 머플러	w, b, g, k, p, ps	대안, 절충, 키치, 부조화, 탈질서
		01f/w	중				
		03f/w	강				
존 갈리아노	파리 런던	01s/s	강	바이어스 이용한 해체적 그런지, 미완성적 마무리, 믹스매치레이어	스커트, 티셔츠, 재킷, 베스트, 코트, 부츠	b, w, g, gr, r, ok	탈질서, 키치, 공생, 부조화, 미완성, 절충
		01f/w	강				
돌체 앤 가바나	밀란	01f/w	강	미완성적 마무리, 찢어진 데님 헤피. 보헤미안, 빈티지풍 그런지	데님팬츠, 스커트, 베스트, 티셔츠, 머플러	b, br, bl, gr, p, r	절충, 대안, 빈곤, 부조화
		02f/w	중				
마르니	밀란	02f/w	중	복고, 보보스적인 소프트 그런지, 믹스매치 레이어링	원피스, 스커트, 모자, 재킷	w, p, b, bl, ps	절충, 부조화
드레스 반 노튼	파리	02f/w	강	에스닉한 믹스 매치 레이어링 그런지, 누더기 톡	스커트, 베스트, 솔, 코트, 레깅스, 부츠	br, w, k	절충, 대안, 빈곤, 부조화
		03f/w	중				
안나 수이	뉴욕	02f/w	중	복고, 롤넥, 헤피. 빈티지풍의 그런지, 패치워크, 믹스매치레이어	블라우스, 원피스, 데님 팬츠, 재킷, 니트	b, bl, v	절충, 대안, 공생, 부조화, 키치
		03f/w	중				
마이클 코어스	파리	01f/w	중	플레이드, 군화의 믹스매치	플레이드 원피스, 팬츠, 부츠	b, p, w	절충, 공생
알렉산더 맥퀸	파리 런던	00f/w	강	찢어진 데님, 미완성적 마무리	원피스, 팬츠, 스커트	b, br	탈질서, 키치, 미완성, 대안
		02f/w	중				
벳시 존슨	뉴욕	02f/w	강	컨터호어, 란제리 톡, 믹스매치 레이어	원피스, 란제리, 스타킹	bl, v, r, k	탈질서, 키치, 공생, 부조화, 대안, 절충
미구엘 애드로버	뉴욕	01f/w	중	낡고 지저분한 누더기 톡	원피스, 니트, 모자	gr, bg	탈질서, 빈곤, 대안
비비안웨스트우드	파리 런던	02f/w	강	해체적인 믹스매치 레이어, 미완성적인 마무리	셔츠, 재킷, 베스트, 스커트, 원피스	b, r, gl, k gr, w, br	탈질서, 부조화, 절충 미완성, 키치, 대안
		03s/s	강				
후세인 살라얀	파리	03f/w	중	플레이드를 이용한 해체적인 패치워크, 믹스매치	원피스, 재킷	b, k, y	부조화, 탈질서, 대안, 절충
장 폴 고티에	파리	01f/w	중	해체적인 믹스매치 레이어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 란제리	br, gr, w, bl, p, r	탈질서, 부조화, 미완성, 대안, 절충
랄프 로렌	뉴욕	03s/s	중	플레이드 패치워크, 빈티지 데님, 미완성적 마무리, 믹스매치	데님 팬츠, 스커트, 재킷	b, bl, br	대안, 절충, 공생
		03f/w	중				
도나 카란	뉴욕	02f/w	중	패치워크, 빈티지 데님, 복고풍의 믹스매치레이어	데님팬츠, 원피스, 재킷, 팬츠	gr, bl, r, w, y	절충, 공생
와이 앤 케이	뉴욕	02f/w	강	미완성적 마무리, 패치워크, 스트리트풍의 믹스매치레이어	탑, 팬츠, 스커트, 코트, 티셔츠	br, b, w, bl, r	탈질서, 부조화, 미완성, 무정형, 절충, 대안
		03s/s	강				
니컬라스 케스케르	뉴욕	02s/s	중	패치워크, 미완성적 마무리	원피스, 팬츠, 탑	r, p, bl, k, gl, w	절충, 대안, 부조화, 미완성, 탈질서
러셀 세이지	런던	01f/w	강	미완성적 마무리, 패치워크, 믹스매치, 해체적인 그런지	원피스, 재킷, 스커트	o, w, bl, gr, r, b	미완성, 탈질서, 부조화, 키치, 빈곤, 대안
		02s/s	중				
		02f/w	강				
홍승완	서울	02f/w	중	스트리트 풍의 믹스매치 레이어링, 복고, 빈티지	재킷, 팬츠, 스커트, 셔츠, 머플러, 모자	br, b, g, w, bg, o	대안, 절충, 부조화
루엘라	뉴욕	01f/w	중	朋크, 록 쇼, 찢어진 데님과 군화의 믹스매치 레이어	스커트, 부츠, 레깅스	bl, r, w	탈질서, 대안, 공생

컬러명: w=white bk=black b=blue r=red y=yellow g=green gr=grey br=brown
 p=purple v=violet k=khaki o=orange gl=gold bg=browngray ps=pastel colors

V. 그런지 패션의 조형미

앞서 분석한 조형적 특성들을 통해 그런지가 안티패션과 다원적인 패션으로서의 몇 가지 조형미를 가지고 있음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안티패션은 주류문화와 패션의 회일성에 적용하지 못하고 소외와 좌절을 느끼던 소수집단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 내는 움직임이며, 기존 패션뿐 아니라 사회, 문화에 대한 반항을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방법과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안티패션은 기존의 정체된 패션에 의외적 충격을 주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런지는 90년대의 대표적인 안티패션으로, 여타의 청년 하위문화가 보여주는 안티패션의 전형적 형식들과 같이 기존의 질서에 대한 거부와 파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그런지의 질서 파괴적인 조형성과 조형미는 결과적으로 패션의 다원화와, 문화의 다원화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지가 가진 조형미는 다음과 같다.

1. 탈질서(脫秩序)의 미

그런지는 기존의 미적 질서와 규범을 부정한다. 세련된 비례, 조화, 균형, 통일, 고급스러움, 고상함, 깨끗함과 같은 기준들, 기존 패션이 추구하던 세련된 멋과 장식, 엘리트와 부자로 보이는 것, 새 것과 단정한 것도 거부한다. 대신 이전에는 추하게 여겨졌던 빈곤, 미완성, 부조화, 저속 등과 같은 반미학(反美學)적 개념에서 미를 도출해내며, 착장형태에 있어서도 탈질서적 특성이 드러난다.

2. 부조화의 미

그런지는 ‘한 벌’의 개념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로워야 한다는 ‘토털 패션’의 개념을 거부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별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믹스 매치레이어하여 기존 패션이 지향하던 조화로운 형태·비례감·통일감에 어긋나는 부조화를 통한 조화미를 추구하였다. 질감, 무늬, 색깔, 형태의 모든 요소가 다른 소재간의 패치워크는 믹스매치레이어가 보여준 부조화의 조화미를 더욱 강조한다. 이질적인 요소들간의 믹스매치 레이어링의 조형미는 이전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개념이었으나, 그런지 이후 현재까지 코디네이션의 기본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3. 미완성의 미

그런지는 의상이 늘 완성된 상태로 착용되어야 한다는 개념도 거부한다. 올풀림, 찢어짐, DIY 등을 통해 ‘미완성(未完成)의 미(美)’가 표현되고, 완성된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완전한 것이 최상의 것은 아니라는 그들의 대안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미완성적인 옷은 불안한 시대상이 가져다 준 심적, 물질적인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빈곤의 미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스스로 만들어 낸 불완전한 의상들을 통해 그들의 반항정신과 함께 자유를 지향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키치의 미

대표적 안티패션인 평크와 히피가 각각 공격성과 회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런지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공격이나 회피 대신 풍자와 냉소적 방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지의 사회비판과 조롱 섞인 낙서 의상들은 의도적으로 싸구려, 혹은 속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전형적인 키치패션의 형태를 보여준다. 키더호어는 의도적으로 저속한 이미지를 도용하고 있으며, 가난해 보이는 의상을 통해 자신들의 물질적, 심적 빈곤을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의 부조리, 고전적 셰슈얼리티, 물질만능주의 등에 대한 역설적 표현으로, 외형적 가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그런지의 스타일은 외형 뿐 아니라 착장 태도에 있어서도 용기를 수반한 자유와 저항이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패션과 가치에 대한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 대안의 미

기존 음악에 대한 ‘대안’ 역할을 하였던 그런지는, 패션에 있어서도 기존패션의 미의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주류의 정통 하이패션뿐 아니라 비주류적, 반미학적, 반패션적인 스트리트 스타일도 패션이라는 대안패션의 개념을 확산시켰다. 절망적인 시대상에 그런지가 내놓은 대안은 “낡은 옷을 입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지 패션만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했다. 낡은 옷을 자르고 꿰매 새로운 옷으로 만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지 스타일은

당시의 경기침체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되었으며, 패션의 주체인 착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자신들의 스타일을 만들게 되므로 여기서 진정한 대안으로서의 스트리트 패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6. 절충의 미

그런지 패션은 그런지 음악이 그려했듯 고정적인 형식이나 질서를 고집하지 않고 개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다원적인 특성들을 포용하며 점차 절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외적 요소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함축되어 있으며, 그만큼 외적 형식에서 자유로우므로 그런지의 스타일은 보통의 거리 짧은이들과 같이 평범하고 나약할 수도, 한편으로는 반항적이고 파괴적일 수도 있었다. 또한 한 사람의 스타일 안에 드레스와 군화, 꽃무늬 블라우스와 찢어진 청바지가 공존하기도 하는 스타일 안에서의 절충에서는 조화만을 추구하는 과거패션에 대비해 대안이 발견된다. 그런지는 90년대 이후의 해체주의,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 속옷의 결착화 같은 하이패션계의 ‘패션 허물기’ 흐름에 일조하며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결과 사람들은 더 많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스스로 그것을 절충할 수 있게 되었다.

7. 공생의 미

그런지는 패션 자체로서도 다원적인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는 문화의 다원화를 패션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현대의 다원주의는 동시대에도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생해나가게 만들었다. ‘패션과 음악’ 역시 단지 공존(共存)하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는 ‘공생(共生)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다양한 음악과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믹스되어 만들어진 그런지 음악과 이것에서 영향을 받아 생겨난 그런지 패션이다. 결과적으로 그런지가 가지는 조형성과 조형미의 특징들은, 90년대 이후 하이패션계의 디자이너들이 보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스트리트 패션이 패션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하는 것과,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주류 하이패션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스트리트패션은 이미 대안의 수준을 넘어 서, 또 하나의 거대한 주류 패션이 되

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현대의 하이패션과 스트리트패션 혹은 상위 패션과 하위 패션, 패션과 반패션은 주종(主從)적 대립 대신, 다원적인 방향의 교류가 가능한 공생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VI. 결 론

힘, 화려함, 돈과 같은 과시적 가치를 선망했던 80년대 사람들과 달리, 경기 침체, 환경 파괴,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있던 90년대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은 지저분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런지’였다. 그런지에 의해 80년대의 화려하고 과장된 파워 수트는 구멍 나고 찢어진 낡은 옷들로 대체되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롭게 코디된 토텔룩은 색과 소재, 무늬, 아이템을 제멋대로 레이어링한 믹스매치 룩으로 대체되었다. 과격함 속에 상처받은 내면을 숨기고 있던 거리 짧은이들, 악기를 부수며 절규하는 뮤지션들, 하이패션의 모델들 모두가 그런지의 대상이었다. 비록 90년대의 그런지가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이후 패션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깨끗함, 단정함, 값비싸움, 세련됨과 같은 요소가 아닌 싸구려나 낡은 것, 거리 청년들의 스타일, 단정하지 못한 미완성품과 같이 과거에는 가치 없다고 느꼈던 것들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미를 찾아내게 되었으며, 현대사회에 다양한 문화나 스타일에 대해 우열과 시비를 가리는 대신 다원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하이패션이 스트리트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스트리트의 하이패션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것은 그런지 같이 낫은 데서 시작한 문화와 스타일, 정신의 가치도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패션은 점점 하이패션의 전유물이 아닌 다원적 형태로 전환될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짧은 대중의 힘이 커짐에 따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의 역할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90년대 초 세계 패션계의 판도를 바꾸었던 그런지는 90년대 중반 이후 잠복기를 거쳐 2000년대의 패션계에 재등장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화, 변형된 2000년대의 그런지가 주류문화 및 상업과 결탁하여 큰 성공을 이뤄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해 준다.

그런지는 이처럼 대안으로 시작된 거리출신 문화, 하위문화 그리고 소수문화일지라도 주류문화와 패션

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다원적인 요소들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주류의 유행과 번지르르한 걸모습이 마치 절대선(絕對善)이나 절대가치라도 되는 것처럼 맹신하곤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기존의 가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대안의 의미를 가졌던 그런지 패션은, 걸모습이기 이전에 정신으로서의 패션이며, 형상화된 하나의 룩이나 드레스코드(dress code)가 이전에 이 시대의 깊은이들이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다. 패션의 외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숨은 가치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패션의 뜻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그런지가 한 시대의 정신을 담은 자화상이자 지금 우리 시대의 초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며, 한없이 정제되고 정체된 주류문화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숨은 가치들과 그 다원적인 특성을 발견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또는 주류문화와 하위문화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자영. (2000). 현대 영국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정원.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 논문.
- 그런지 룩의 부활. (2002, 10. 5). *한국경제신문*.
- 그런지의 미학과 정치. (1996). *imazine*, No 5. 서울: 삼성출판사.
-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 디자인 100년*. 서울: 교문사.
- 런던이 런던다운 이유. (1999). *vogue korea*, No 36. 서울: (주) 두산잡지.
- 로이 셔커. (1999). 대중음악사전. 이정엽. 장호연 옮김. 서울: 한나래.
- 류순경. (1997).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현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 논문.
- 송기현. (1998). 한국 Street Mode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 신현준 외. (1996). 얼트문화와 록음악1. 서울: 한나래.
- 신현준 외. (1997). 얼트문화와 록음악2. 서울: 한나래.
- 정진영. (2002). 벨기에 패션디자인의 반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 논문.
- 한국사전연구사. (1997). fashion전문 자료사전.
- Grunge Comeback. (2001). *vogue korea*. No 63. 서울: (주) 두산잡지.
-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Prestel.
- Nirvana story book. (1996). 서울: 음악전문도서출판 꾼.